

익산 용성초 김영훈 어린이, 드론 전국대회 '우승'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용성초, 5명 출전 최우수 포함 2명 입상 김 어린이, RCIN REPORT서 1등 하기도

익산 용성초(교장 민완성) 김영훈 어린이가 지난 27일 안성에서 열린 2017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드론 미션레이싱 부문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사상을 앙양하고 기초항공에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미래항공우주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용성초등학교는 5명의 어린이가 출전하여 1등인 최우수상을 포함 2명이 입상하였다.

또한, 김영훈 어린이는 지난 4월 16일 군산에서 열린 RCIN REPORT 학생 조종 드론 전국대회에서도 1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작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시작한 용성초등학교는 강방용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로 2016년에도 공군참모총장기 전국대회, 전북드론대회 등에서도 1등을 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전교생 15명의 농촌 작은학교인 용성초는 어울림학교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 4차산



익산 용성초 김영훈 어린이가 지난 27일 안성에서 열린 2017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드론 미션레이싱 부문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항공우주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익산의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제시 교월동 맞춤형복지팀, 경로당 순두부 배달 '구슬땀'

김제시 교월동행복복지센터(동장 김태환)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경로당을 순회하며 순두부를 배달하면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두부 배달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김제시 북죽동에 위치한 맷돌순두부(대표 최병순)에서 순두부를 후원받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교월동 맞춤형복지팀원들이 직접 경로당에 순두부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36개 경로당 중에서 8개소의 경로당에 순두부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순두부 배달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순두부 나눔을 펼치고 있는 맷돌순두부 최병순 대표는 수년간 지속적인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김태환 교월동장은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소외 계층을 위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모두가 행복한 교월동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경찰서, 가정의 달 가훈 써주기 행사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전주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렴·인권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청문감사계 담당자 메일로 접수를 받아 총 5명이 선정되어 캘리그라피 가훈을 받게 됐다.



이번 행사는 멋진 한글 캘리그라피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선정된 가훈 중 대표가훈으로는 정보경비계 권혁구 경위의 "꿈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송형용 순경의 "아끼며 사랑하고 웃으며 행복하자."라는 가훈이 있었으며 특히, 첫 가훈을 갖는 직원도 생겨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송형용 순경은 "멋진 캘리그라피 가훈을 갖게 되어 기분도 좋고, 항상 가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하루 뜻깊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경찰서, 초등학생 대상 나들이 격려 행사 개최

고창경찰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지역역사 탐방 및 꿈과 희망을 심는 신나는 나들이 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격려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고 맑게 커나가는 청소년과 학교별로 모범청소년을 초청하여 고창군, 고창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후원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청소년들은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선사시대의 문화인 반달돌갈 만들기 체험 등 지역 유래를 공부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편,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친구맺기를 통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자고 하는 등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도 되었다.

고창경찰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과 보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이리신광교회, 영등1동 미등록 경로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이리신광교회 사회봉사국(국장 윤석원)은 지난 5월 27~28일 영등1동 숭리 미등록 경로당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국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컨테이너 두 동의 내부 단열처리, 방충망 교체와 도배장판 공사를 했다. 꼼꼼한 손길을 통해 낡고 오래된 건물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신광교회 사회봉사국 집수리사업팀은 올해부터 법적 지원이 미비한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다. 영등1동 빈민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두 곳을 선정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개선사업으로 올해 마중에 이어서 두 번째 집수리 사업이 마무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고, 후배들에게 익명의 장학금 전달 '훈훈'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 모교에 대한 사랑이 익명의 장학금으로 전달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군산고등학교 교장실에는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다. 봉투에는 1,000만 원 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6.25 직후에 이 학교를 졸업한 80대의 동문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기증자는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노후의 용돈을 아낀 것을 보내니 전통의 명문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다시 한 번 드높이는 데 써 달라며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였다.

모교에 대한 사랑과 품격 있는 인생에 대한 경건함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5월 초에도 역시 이 학교 출신인 박철영(전주 우리들 향외과 원장) 동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써 달라며' 500만원을 쾌척한 것.

시간을 넘나들며 곳곳에서 답지하는 선배 동문들의 사랑과 정성에 군산고등학교(교장 송일섭)는 "엄격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그 아름다운 뜻이 학생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형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신문사 (주)전주매일신문사 222-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86	김제지사 547-888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86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845-933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8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명의 독지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익명의 독지가가 29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500만원을 쾌척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고향이 진안이라고 밝힌 익명의 독지기는 "고향인 진안의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후학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항로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재단에 보내주신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 절로 힘이 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